

정부 재정 더해 총 7200억 규모… 12개 첨단전략산업 투자

다시 돌아온 ‘국민성장펀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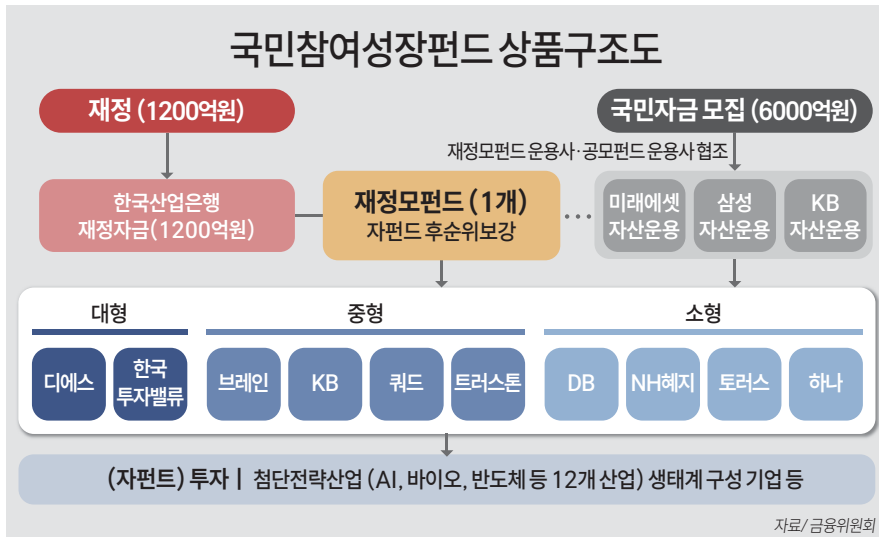
오는 30일부터 내달 15일까지 판매
기술력 갖춘 기업에 성장자금 공급
1차 ‘오픈런·조기 소진’ 수요 몰려

국민이 출자한 자금을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하는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가 이달 말 출시된다. 정부가 후순위 재정을 투입해 일반 투자자의 손실 위험을 일부 낮춘 상품이지만 원금이 보장되지 않고 5년간 중도 환매도 할 수 있어 장기 투자 여부를 충분히 따져야 한다.

◆ 국민자금 6000억원, 첨단산업 성장에 투자

금융위원회는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를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10영업일 동안 판매한다고 8일 밝혔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등 10개 은행,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 등 14개 증권사의 영업점과 온라인 채널을 통해 선착순으로 가입할 수 있다. 모집액 6000억원이 소진되면 조기에 판매를 마감한다.

이번 펀드는 국민이 투자한 6000억원에 정부의 후순위 재정 1200억원을 더해 총 7200억원 규모로 운용된다. 손실이 발생하면 정부 출자금이 먼저 손실을 부담하



는 구조지만, 손실 규모가 후순위 재정투입액을 넘으면 일반 투자자도 손실을 볼 수 있다.

상품은 공모펀드가 여러 사모 자펀드(실제 기업 투자를 담당하는 하위 펀드)에 투자하는 ‘사모재간접공모펀드’다. 미래에셋·삼성·KB자산운용이 각각 공모펀드를 운용하고, 실제 기업 투자는 선정된 10개 자산운용사가 맡는다. 어느 공모펀드에 가입하더라도 동일한 자펀드 포트폴리오에 투자하기 때문에 운용 결과와 수익률은 같다.

자펀드 운용사로는 대형 부문에서 디에스자산운용과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이 선정됐다. 중형 부문은 브레인·KB·퀀트·

트러스톤자산운용, 소형 부문은 DB·NH헤지·토러스·하나자산운용이 맡는다.

이번 펀드는 결성금액의 60% 이상을 반도체와 이차전지, AI, 바이오, 방산, 로봇, 미래차 등 12개 첨단전략산업 및 관련 기업에 투자한다. 전체 자금의 30% 이상은 비상장기업과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에 유상증자나 메자닌 방식으로 공급하고, 코스피 상장사 투자는 10% 이내로 제한한다.

기술력을 갖췄지만 사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자금난을 겪는 기업에 성장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펀드의 정책 목표다. 개별 자펀드 결성액의 40% 이내에서는 운용사가 비교적 자유롭게 투자해 수익성과 안

정성을 보완하도록 했다.

정부는 올해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민관 합동자금 30조6000억원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국민참여성장펀드는 1·2차 국민 모집액 1조2000억원과 후순위 재정 2400억원을 합쳐 총 1조44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 5년간 환매 불가… 원금 손실 가능성 유의

전용계좌를 통해 가입하면 투자금액에 따라 최대 18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투자액 3000만원까지는 40%, 3000만원 초과 5000만원까지는 20%, 5000만원 초과 7000만원까지는 1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배당소득에는 투자일로부터 최대 5년간 9.9%의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전용계좌 가입 한도는 연간 1억원이며 5년간 최대 2억원이다. 다만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던 사람은 전용계좌에 가입할 수 없다. 세제 혜택을 받지 않는 일반계좌로도 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자 한도는 연간 3000만원이다.

이 상품은 만기 5년의 환매금지형 펀드여서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 설정 이후 거래소에 상장되면 다른 투자자에게 팔 수 있지만 거래가 원활하지 않거나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해야 할 수 있다. 투

자 후 3년 이내 양도하면 소득공제와 분리과세로 감면받은 세액도 추정된다.

비상장주식과 메자닌 등 즉시 가격을 산정하기 어려운 자산이 포함되는 만큼 단기간에 운용 성과를 판단하기도 어렵다. 연간 보수수수료는 약 1.2%이며 온라인 가입 시 약 1.0% 수준이다.

판매 첫 주에는 전체 물량의 절반인 3000억원을 서민 몫으로 배정한다. 근로 소득 5000만원 이하인 가입자 등이 대상이다. 첫 주에 서민 물량이 남으면 다음 달 8일부터는 일반 물량과 구분하지 않고 판매한다. 온라인 판매 비중도 첫 주에는 은행 40%, 증권사 60%로 제한하고 둘째 주부터 제한을 없앤다.

지난 5월 출시된 1차 국민참여성장펀드에 실제로 투자한 사람은 이번 2차 펀드에 가입할 수 없다. 당시 전용계좌만 만들고 투자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다.

한편 2차 펀드 역시 1차 때와 마찬가지로 가입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 지난 5월 출시된 1차 펀드는 판매 첫날 주요 은행과 증권사의 온라인·영업점 물량이 잇달아 소진됐다. 일부 증권사의 온라인 물량은 판매 시작 10분 만에 동났고, 은행 영업점에는 개점 전부터 가입자가 줄을 서는 ‘오픈런’도 나타났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metro

美 관세·생산 차질에 구리값 사상 최고

최근 12개월간 가격 상승률 47%

美, 두 달째 구리 관세 여부 결론 못내
칠레 광산 붕괴사고에 생산량 둔화

국제 구리 가격이 미국의 정제 구리 관세 부과 가능성과 주요 광산의 생산 차질이 맞물리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투자 확대로 중장기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구리 재고가 미국에 집중되면서 단기적인 공급 불안도 가격을 밀어 올리고 있다.

8일(현지시간) 런던금속거래소(LME)에서 3개월물 구리 선물 가격은 1만 4509.50달러를 기록 중이다. 전 날 장중에는 톤(t)당 1만 4533달러까지 상승했는데 이는 지난 1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를 넘어선 수준이다. 최근 12개월간 구리 가격 상

승률은 47%에 달한다.

최근 상승세에는 미국의 정제 구리 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크게 작용했다. 미국 상무부는 정제 구리 관세 부과 여부를 담은 조사 보고서를 지난 6월 말까지 제출할 예정이었지만 두 달 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미국이 정제 구리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에 대비해 글로벌 상품업체들이 수십만 t의 물량을 미국으로 미리 들여온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내 구리 가격이 유럽과 아시아보다 높게 형성되면서 지역 간 가격 차이를 노린 선반입도 늘었다.

이에 따라 뉴욕상품거래소 구리 재고는 지난해 2월 8만 t에서 최근 65만 2200 t으로 8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LME 창고의 가

용 재고는 빠르게 줄어들면서 미국 이외 지역에서는 현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현물 재고 감소는 구리 가격 하락에 베풀었던 투자자들의 매수 전환도 불러왔다. 예상과 달리 가격이 오르지 공매도 투자자들이 손실을 줄이기 위해 선물을 사들이는 ‘숏스퀴즈’가 발생하며 상승 폭을 키웠다는 분석이다.

크리스티안 시푸엔테스 칠레 구리·광업 연구센터 수석 애널리스트는 “최종 수요의 과잉보다는 관세 가능성이 거래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다”며 “전 세계적인 수요 과잉이라기보다는 지역별 재고 불균형에 따른 부족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세계 최대 구리 생산국인 칠레의 공급 차질도 가격을 떠받치고 있다. 현지 광산

붕괴 사고와 구리광석 품위 저하 등으로 생산이 둔화하면서 칠레의 지난달 구리 수출액은 46억 3000만 달러로 전월의 53억 7000만 달러보다 감소했다. 1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칠레의 생산량이 하반기에도 회복되지 못하면 전 세계 광산 공급량은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연간 감소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노후화한 대형 광산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신규 광산 개발에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해 공급 확대가 수요 증가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향후 구리 가격 흐름은 미국 정부의 관세 결정에 좌우될 전망이다. 정제 구리 관세가 백지화되면 미국에 쏠린 재고가 다시 풀리면서 가격 상승세가 꺾일 수 있다. 반대로 관세 부과가 확정되고 칠레의 생산 차질까지 장기화하면 구리 가격의 추가 상승 가능성이 커진다.

/허정윤 기자

무디스 “공공기관 개편 방안 신용도에 영향 없어”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한국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개편 방안이 대상 기관들의 신용도를 크게 바꾸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무디스는 7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 3일 한국 정부가 내놓은 정부 관련 발행기관(GRI·Government-Related Issuers) 개편 계획을 이같이 평가했다.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부여한 비금융 GRI 가운데 주요 변경 사항은 ▲한국전력공사(Aa2 안정적) 산하 5개 화력발전 자회사 통합 ▲한국가스공사(Aa2 안정적)와 한국석유공사(Aa2 안정적) 통합 ▲한국토지주택공사(LH, Aa2 안정적)의 2개 법인 분할이다.

무디스는 “정부가 아직 개편의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개편 대상 GRI들의 신용도를 실질적으로 바꿀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이들의 신용도는 에너지 안보 또는 공공정책에서의 핵심적 역할을 반영할 매우 높은 정부 지원 가능성에 주로 기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LH 분할의 경우 분할된 두 법인이 기존 채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유지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전 화력발전 자회사 통합에 대해서는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제조에서 발생하는 수요 증가 속에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유지하고 에너지 전환을 뒷받침하는 핵심 역할을 맡는, 더 크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GRI가 만들어질 것으로 봤다.

2026년 상반기 발전 실적 기준으로 통합 법인은 국내 전체 발전량의 32%를 차지해 국내 최대 발전사업자가 된다. 대규모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개발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아영 기자 aykim@

반도체 3배 레버리지 사고, 美 국채·배당으로 변동성 대비

해외주식 Click

일주일 새 SOXL 10.7억 弗 매수
불확실성에 SGOV·SCHD도 담가

미국 증시의 방향성을 두고 투자자들의 선택이 복잡해지고 있다. 국내 투자자(서학개미)들은 반도체 3배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10억 달러 넘게 사들이며 공격적인 배팅에 나선 동시에 초단기 미국 국채와 배당 ETF에도 자금을 넣었다.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금리 향방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자 상승 가능성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변동성에 대비하려는 투자심리가 동시에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8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SE IBro)에 따르면 지난 한 주(결제 기준, 8월 31일~9월 7일)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매수결제 1위는 디렉시온 데일리 세미컨덕터 불 3X ETF(SOXL)로 10억 7551만 달러를 기록했다. 2위인 ‘아이셰어즈 0-3개월 미국 국채 ETF(SGOV)’의 1억 5735만 달러보다 7배 가까이 많은 규모다.

SOXL에 집중된 자금은 반도체 업종에 대한 서학개미들의 공격적인 투자심리를 보여준다. 개별 종목에서도 엔비디아 8064만 달러, 브로드컴 7468만 달러의 매수결제가 이뤄졌다. 주요 반도체 기업도 나란히 상위권에 들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다시 반도체로 향하는 모습이다.

빅테크에 대한 매수세도 이어졌다. 알파벳 클래스A의 매수결제액은 9289만 달러, 메타는 8149만 달러를 기록했다. 아이온큐(6432만 달러)와 테슬라(6078만 달러) 등 성장주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금리 부담에도 기술주 상승 가능성에 베풀는 수요가 여전히 강한 셈이다.

반면 같은 기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자산에도 적지 않은 자금이 들어왔다. 만기 3개월 이하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SGOV가 전체 2위에 올랐고, 슈왈 미국 배당주 ETF(SCHD)도 7234만 달러가 매수됐다.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는 반도체 레버리지 상품을 적극적으로 사들이면서 한

/허정윤 기자